

광주 문학관 최종 후보지 복구 시화 문화마을

전시실·수장고·문화시설 등 189억 투입 2022년 완공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맞쟁을 빚었던 광주문학관 최종 후보지 4곳 가운데 1순위로 광주시 복구 각하동 시화 문화마을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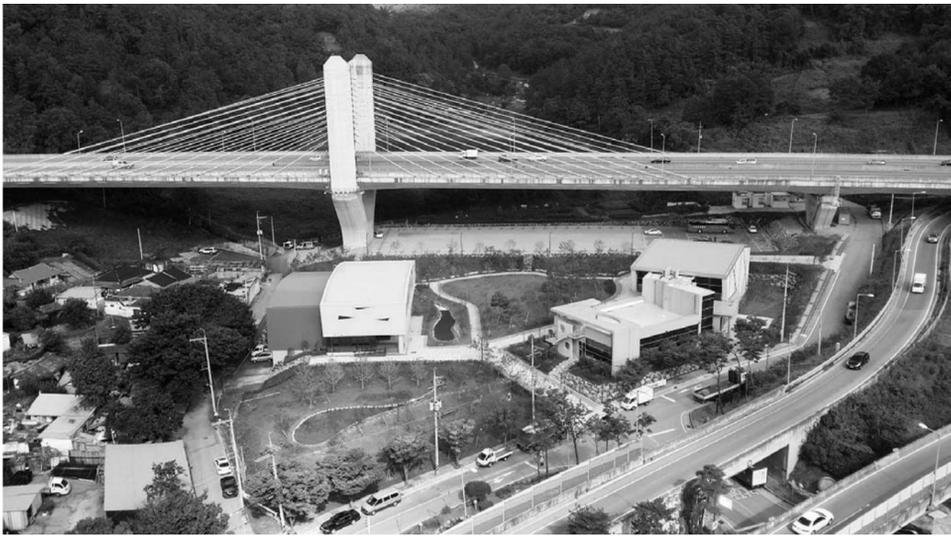
16일 광주시는 “지난 14일 ‘광주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화 문화마을은 미술관, 커뮤니티센터, 문화의 집 등 연계 가능한 시설물이 다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마을에서 백일장, 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선정 이유가 됐다.

최종 후보지로는 마복공원(2순위), 상무소각장(3순위), 지원배수지(4순위)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문화적 환경과의 적합성, 비용 등을 따져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학관 조직 구성은 관장 1명, 학예담당자 5명, 행정관리자 3명이 적정하다고 봤다.

건립 완료까지 자문·심의 역할을 수행할 가장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시 2명, 시의회 1명, 문학단체 6명, 언론 1명, 타 시도 문학관 2명, 시민단체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광주시가 광주문학관 최종 후보지 4곳 가운데 1순위로 선정한 복구 각하동 시화 문화마을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건물은 연면적 4680㎡에 건축면적 118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상설전시실 4개소, 기획전시실 2개소,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작실 4개소, 사랑방 2개소, 수장고,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공사 기간은 총 33개월이며 사업비는 189억5000만원, 운영비는 연간 16억원으로 추정됐다.

광주문학관은 사업 초기부터 문학단체 간의 갈등과 주도권 싸움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을 위

해 동구 윤리동의 전통문화관 옆으로 결정됐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고, 동구 도심의 한 예식장 건물은 건물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빚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광주문학관 건립을 추진했던 일부 단체의 전문성 결여와 졸속 추진으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0억원에 달하는 건립 예산과 해마다 투입해야 하는 운영비가 광주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문학관의 방문객 수는 연

간 66만5000명, 그리고 수익은 대관료와 임대료, 문화상품 판매액 등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대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간 40억원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관련 단체, 문인, 해당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건립에 착수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고위직 ‘광주 동신고 전성시대’

황서중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4명 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차관급 인사 16명을 교체하는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사(차관급 이상)를 단행한 가운데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소청심사위원)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정무경 조달청장(7차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이는 황 처장이 1964년생으로 가장 많고 정 청장이 1964년생, 이 차관이 1965년생 순이다. 황 처장과 정 청장은 행정고시 31회 동기이고 이 차관은 32회다. 현직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1964년생, 행시 34회)도 동신고 출신이어서 현 정부에서 동신고 출신 차관급만 4명이다.

1966년 개교한 동신고는 동신중·여중, 동신고·여고, 동강대 등을 소유한 동강학원 산하 사립고등학교다. 창업자의 며느리인 김필식 동강학원 이사장이 김필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다.

차관급 인사 16명을 지역별로 보면 호남과 수도권 출신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남 출신은 동신고 3인방을 비롯해,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관(전 남 해남),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전북 고창) 등이다. 이어 충청(4명), 영남(2명)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2명, 포항공대·한양대·인하대·충남대 각 1명씩이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차관급 16명 인사

이호승 기재부 1차관 등 靑 참모 3명 각 부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실시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임명했다. 경제 관련 부처의 차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과 더불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제정책에서 속도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3명을 각 부처로 내려보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수석급인 문미옥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관으로 임명했다. 지난 1년 반 이상 청와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손발을 맞추어온 이들을 각 부처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정책 집행 일관성을 높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의 인사 이동으로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당

결정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의전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을 비롯해 5개 비서관급 자리가 비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중 인사혁신처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민 행정안전부 차관 겸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가,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기재부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김일재 행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의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역동적인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암호 가창오리떼 도래 전남도 AI 방역 강화

국내 대표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에 가장자리 20여만마리가 날아들자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암호에서 가장자리 20여만마리가 관찰되는 등 전남 지역으로 겨울 철새 유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암호뿐만 아니라 순천만, 고천암 등에도 겨울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다.

특히 강진 만덕간척지와 순천만에서 저병원성이지만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남도는 육군 31사단 제복 차량, 농업 99개 공동방제단, 사군 보유 방제 차량 24대를 총동원해 오는 21일까지 전남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한다.

또 축산농가에는 농장 주변에 생식회를 충분히 살포하도록 하고, 농장 입구에 고정형 소독시설과 출입구 차단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연금 개편안 ‘노후보장’ 방점·지급보증 명문화

정부 보험료를 12~13% 인상·기초연금 인상 등 4개안 제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를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재정안정’ 보다는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힌 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

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를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지만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법 제고를 위한 ‘지급보증 명문화’ ▲ 보험료 납부자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금리 지원 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을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통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돈돈독아 성공비법

직장논치문화 제로법
직장인 후대(이)에게 논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수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기업에서 일할 때는 어때요!!

육아대디 지지법
여백들의 육아에 힘입어, 육아, 육아, 육아!!

육아수주 주의법
서로 육아에 관심, 대신 힘들게 바쁘게 한다니 반대!!

직장 가족 이웃

돈돈독아 동참법
공약이 육아, 육아, 육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 2억8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김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7억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땅 3044㎡ 도로있을 투자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있을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장성읍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은행2억 임대중임 3억5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물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질질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김정기이해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